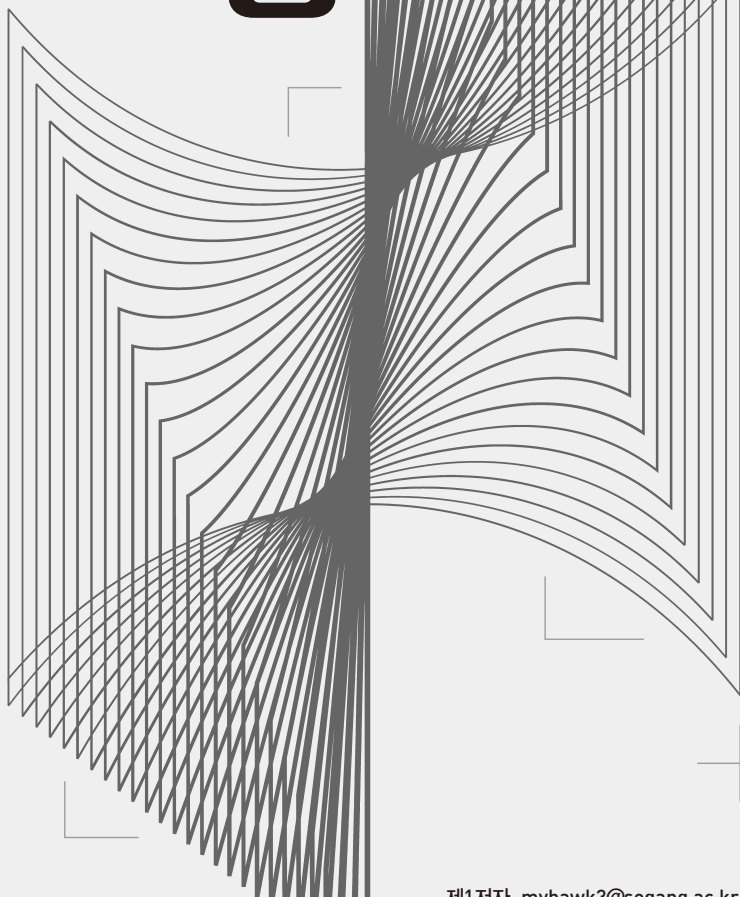


서평

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7호

(2025/겨울)



제1저자. myhawk3@sogang.ac.kr

거장이 아닌 혁신가들의 역사

자비와 성화를 향한 가톨릭 윤리신학의 재구성

권영파(서강대학교 K종교학술혁신연구소 · 교의신학 · 선임연구원)

<https://doi.org/10.21738/JHS.2025.12.57.379>

I. 서론

■ 교의신학이 신앙의 지형을 그리는 작업이라면, 윤리신학은 그 지형 속에서 실제로 길을 찾아 나선 이들의 발걸음과 결단을 다루는 학문이다. 윤리신학이 언제나 ‘삶의 자리(Sitz im Leben)’라는 구체적 토양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역사 속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윤리적 선택을 만들어 왔는가? 바로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제임스 키난(James F. Keenan SJ)의 저서, 『가톨릭 신학적 윤리의 역사(*A History of Catholic Theological Ethics*)』*가 펼쳐 보이는 여정이 시작된다.

윤리신학의 세계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규범과 원칙을 정교하게 제시하는 전통적 개론서들이 먼저 떠오른다. 찰스 커란(Charles E. Curran)이 정리한 방대한 종합(*The Catholic Moral Tradition Today*)**이나, 서베이스 핀카에르(Servais Pinckaers)가 복원한 덕 윤

* James F. Keenan, *History of Catholic Theological Ethics*, A. Paulist Press, 2022.

** Charles E. Curran, *The Catholic Moral Tradition Today: a synthesi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9.

리의 체계(*The Sources of Christian Ethics*)*는 오랫동안 윤리신학 교육의 표준을 형성해 왔다. 또한 유전자 복제, 동성애, 조력 존엄사와 같이 오늘의 첨예한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해석하고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들도 책장을 가득 채운다.

그런데 이 풍성한 책장 앞에 서면 문득 더 근원적인 질문들이 쏟아진다. 도대체 가톨릭 윤리는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 왔을까? 어떠한 시대적 조건이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에 입각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게 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는 문을 열어주었을까? 그 치열했던 혁신과 응답의 맥락은 과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키난의 책 『가톨릭 신학적 윤리**의 역사』은 기존 전통이 남긴 빈틈, 즉 추상적 원칙 뒤에 가려져 있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길을 찾았던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추적하려는 시도로서 독특한 의미를 헤아려보는 문을 열어준다.

* Servais Pinckaers, *The Sources of Christian Ethic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95.

** 저자는 책의 제목을 관습적인 'Moral Theology'가 아닌 'Theological Ethics'로 명명하며 두 개념을 의도적으로 구분한다(Preface, xiv). 저자에 따르면 트렌트 공의회 이후 주류를 이룬 'Moral Theology'가 고해소에서 개별적 '행위 판단(judgment of personal conduct)'에 집중하며 매뉴얼 전통으로 고착화되었다면, 'Theological Ethics'는 인간학적 비전과 사회적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다루던 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전통을 지향한다. 한편, 한국어 용례에서 보면, '도덕'은 구체적인 규범 준수나 개인의 정행(正行)을 강조하는 반면, '윤리'는 인간 삶의 이치와 관계에 대한 구조적·체계적 탐구를 함의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기존의 매뉴얼 전통을 지칭할 때는 '도덕신학'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지평을 지칭할 때는 '신학적 윤리'로 구분하여 번역하기로 한다.

II. 전통을 읽는 시선: 키난의 해석학적 접근

■ 키난의 책은 ‘역사’를 다루지만, 그 접근은 전통적 역사서와 다르다. 키난은 연대기적 재현을 하기보다, 전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승할 것인가라는 신학적 물음을 중심에 두고 역사를 다시 읽는다. 통상적인 역사서들이 따르는 엄격한 시간의 흐름조차 이 책에서는 유연하게 해체되고 재배치된다. 이는 키난이 역사를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윤리신학적 주장을 펼치기 위한 ‘재료’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관심은 명백하다. “우리는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쥐고, 윤리신학자의 시선으로 전통을 관통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그는 맹목적 보수와 단절적 진보 사이의 제3의 길을 모색한다. 스승 요제프 폭스의 영향 아래, 그는 전통을 경직된 규칙의 나열이 아닌, 구체적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응답(response)’의 과정으로 해석하며 자신만의 윤리신학적 지형을 구축해 나간다.

키난은 윤리신학의 전통을 추적하며 성화를 향한 열망과 자비, 혁신과 응답의 장면을 줌인한다. 이는 죄와 규칙의 역사로 보는 몇몇의 신학자들과 분명한 대비를 보이는 지점이다.* 보다 특징적인 점은 저자가 소수의 거장(Grand Achievers)에 집중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

* 존 마호니(John Mahoney)의 *The Making of Moral Theology*(1989)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은 역사를 바라보는 틀이다. 마호니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기점으로 “이전의 죄 중심적이고 법률적인 어둠”과 “이후의 사랑과 인격 중심의 빛”을 대조시키는 이분법적 서사를 취했다.

을 고안해 낸 ‘혁신가(Innovators)’들을 역사의 전면에 배치시키는 안목이다. 키난이 혁신가로 꼽는 이들 안에 16세기의 결의론자(Casuists)*, 살라망카 학파의 법률가들, 평신도 형제단, 그리고 여성 신비가들이 포함된다. 이 대목은 이 책이 키난의 이전 저서와 연결되는 대목을 보여주는 동시에 저자 자신이 속한 예수회의 전통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책에서 큰 비중을 갖는 결의론자에 대한 키난의 관심은 1995년에 편집 출판된 저서, 『결의론의 맥락(The Context of Casuist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현대 윤리신학에서 사례 중심 판단이 다시 필요해 졌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과거에 왜곡되었던 결의론자 전통을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려는 목적 하에 기획되었다. 다수의 전공자들이 모여, 15세기 프란치스칸으로 수사학과 윤리추론을 결합한 강론을 펼친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Bernardino of Siena, 1380~1444)***와 파리대학의 명목론자인 존 마이어(John Mair) 뿐만 아니라 개신교 결의론자인 William Perkins와 Jeremy Taylor를 거쳐 Sabetti's Manual로 불리는 *Compendium Theologiae*

* Casuistry는 라틴어 ‘카수스(casus, 사례)’에서 유래한 용어로,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삶의 정황에 적용하여 올바른 판단을 도출하려는 윤리적 방법론을 일컫는다. 이 전통은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신자들의 양심을 돕기 위해 발전했으나, 역사적으로 과도한 논리적 세분화에 빠져 죄를 합리화하거나 윤리적 본질을 흐리는 궤변론자(sophist)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는 추상적 율법주의를 넘어 개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비와 성화를 지향하는 사목적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편, 결의론(決疑論)이라는 한자어는 ‘의문(疑)을 해결(決)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이 방법론이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신자들의 양심을 돕기 위한 사목적 동기에서 출발했음을 언어적으로 잘 보여주기에 국내의 몇몇 연구논문(예, 이인재, 「의료 윤리 의사결정 방법론으로서 결의론의 가능성」, 의학교육 13(4), 2010)에서 이미 사용되는 이 번역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James F. Keenan and Thomas A. Shannon, eds., *The Context of Casuistry*,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5.

*** 이탈리아의 프란치스코회 사제이자 탁월한 대중 설교가로, 당대 사회와 교회의 쇠신을 이끌었다.

*Moralis**로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지는 메뉴얼 전통을 꼼꼼히 분석한다.

자칫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률가적인 윤리신학이나 ‘판단의 기술’로 비판받을 수 있는 결의론을 다루며, 편집자로서 키난은 각 사례 안에 작동하는 문화적 전제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윤리판단의 과정 속에 반영하려던 그들의 노력과 공로를 재평가하고 제안한다. 이러한 그의 노선에는 ‘예수회원(Jesuit)’으로서, 상아탑의 학자이기 이전에, 영혼을 돌보는 사목적 관심, 즉 ‘식별(discernment)’과 ‘양심(conscience)’,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그 밑면에 깔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키난이 2010년에 출판한 『윤리적 지혜(*Moral Wisdom*)』**는 가톨릭 윤리 전통의 주요 자원들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그는 사랑과 양심, 죄와 고통을 인간의 근본경험으로 꼽으며, 예수의 전기와 (교리문답 속) 십계명, 자비의 실천, 사추덕(cardinal virtues, 정의·현명·충실·자기돌봄)***을 분석하면서 윤

* *Compendium Theologiae Moralis*, 일명 ‘사베티 매뉴얼’은 예수회원 알로이시오 사베티(Aloysius Sabetti, 1839~1898)가 장-피에르 구리(Jean-Pierre Gury S.J., 1801~1866)의 1850년에 라틴어로 출판된 교본을 미국의 사목적 현실에 맞춰 수정·보완하고, 사후 바렛(Barrett)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수행한 권위 있는 저작이다. 이 책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가톨릭 신학교의 표준 교과서로 사용되었으며, 고해사제들이 구체적인 사례(casus) 안에서 죄의 경중을 판단하고 적절한 지침을 줄 수 있도록 돕는 결의론적(casuistic) 교육의 정수를 보여준다. 오늘날에는 지나친 법률주의의 표본으로 비판되기도 하지만, 키난은 이를 단순한 규정의 나열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 속에서 신자들의 양심을 보호하고 이끌어 했던 구체적인 사목적 노력의 산물로 재평가한다.

** J. F. Keenan SJ, *Moral Wisdom: Lessons and Texts from the Catholic Tradition*, London, Sheed & Ward, 2004, 이 책은 2010년에 같은 제목으로 Rowman & Littlefield사에서 2판으로 출판되었다.

*** 전통적인 사추덕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립한 현명(Prudentia), 정의(Iustitia), 용기(Fortitudo), 절제(Temperantia)를 지칭한다. 그런데 키난은 1995년 논문 “Proposing Cardinal Virtues”, *Theological Studies*, 56을 통해 덕의 기초를 개인의 ‘능력’이 아닌 ‘관계성’으로 재해석하며 이 목록

리적 인격과 훈련의 의미를 강조하고 희망이라는 덕을 교회와 사회가 지켜갈 리더십으로 제안한다. 아퀴나스 신학에 대한 저자의 풍부한 이해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이 책은 사랑을 윤리신학의 근본으로 세우고, 자비를 그리스도교 정체성의 핵심으로 정위시키는 동시에 성서와 전통이 시대와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윤리적 지혜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III. 실천·학문·사목: 윤리 전통의 다층적 전개

■ 키난이 구성한 여덟 개 장의 배열은 단순한 역사적 나열이 아니라, 실천-학문-사목이라는 윤리 전통의 여러 층위가 어떻게 서로를 비추며 발전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신학적 지도를 형성한다. 1장은 예수와 신약성경을 윤리신학의 출발점이자 윤리 전통의 근원적 영감으로 제시하고, 2장은 초기 교회의 사회적 형성을 다루면서 윤리가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공동체의 조직, 박해와 선교, 가난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삶의 양식임을 분명히 한다. 그런 점에서 1·2장은 역사 서술이라기보다 이후의 역사를 읽어 가는 해석 코드에 가깝다.

시기를 따라 관계 안에서 실천된 덕을 정리하는 본론은 3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거룩함을 향한 교부시대와 중세의

의 획기적인 변용을 제안했다. 그는 인간이 맺는 3종의 관계 층위에 따라, 기존의 ‘용기’와 ‘절제’를 대신하여 구체적 타인(가족·친구)을 향한 ‘충실(Fidelity)’과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돌봄(Self-care)’을 도입하고, 이를 ‘정의’, ‘현명’과 함께 새로운 사추덕으로 제시하였다.

다양한 길”이라는 제목 아래, 키난이 발굴해 낸 혁신가들의 명단에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거장뿐 아니라 구체적 역사 현장에서 성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연 실천가들이 대거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엄격한 공적 회개 예식을 ‘영혼의 친구(Anamchara)’와의 인격적 대화와 치유(사적 고해)로 바꾼 6세기 켈트 수도자들, 외적 율법보다 내면의 양심과 식별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이끈 로올라의 이나시오의 영성 운동이 그러하다. 여기서 예수회원인 키난이 영성수련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이전의 윤리 지침이 “무엇을 하라/하지 말라”는 외부 규범에 머물렀다면, 이나시오는 위로와 고독(consolation and desolation)이라는 내적 움직임을 살피는 ‘식별(discernment)’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신학의 초점을 ‘행위(act)’에서 ‘행위자(agent)’와 ‘양심(conscience)’으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한다. 이 사례들은 교리가 추상적 규범을 넘어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자비의 도구’로 재탄생하는 장면들로 읽힌다.

4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넓게 아우르는 3장에 이어, 4장은 중세 스콜라주의를, 5장은 이전 저서에서 다루었던 결의론의 발전을 추적한다. 시간 순서만 놓고 보면 다소 뒤섞인 구성이지만, 이 구조에서 감지되는 ‘층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장이 신자들의 실천적 노력을, 4장이 대학 강단의 학문적 체계화를 다룬다면, 5장은 고해소라는 현장에서 사목자들이 부딪힌 적용의 문제를 다룬다. 윤리 전통이 소수의 지도자에 의해 단선적으로 흐르지 않고, 각 층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저자의 영리한 전략이 뒤죽박죽하게 보이는 시간 전개에 담겨있는

셈이다.

특히 결의론을 다루는 5장에서 저자는 이중 결과의 원리(double effect)나 양심의 확실성 같은 개념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며, 이를 궤변이 아닌 구체적 상황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던 치열한 노력으로 조명한다. 이는 폄하되었던 결의론 전통을 윤리신학의 계보 안에서 긍정적으로 복원시킨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6장에서는 살라망카 학파와 평신도 형제단 등을 통해 윤리의 시야가 사적인 고해소를 넘어 사회로 확장된다. 이들이 신대륙 발견과 식민지배라는 급변하는 상황에 응답하며 자연법과 국제법의 토대를 닦았다는 저자의 지적은, 소수의 거장을 넘어 상황에 반응하며 신앙을 실천해 온 이들을 윤리신학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복원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7장은 리구오리와 매뉴얼리즘, 그리고 헤링·폭스를 중심으로 한 20세기 쇠신을 다룬다. 여기서 매뉴얼리즘은 *The Context of Casuistry*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규범주의로 축소되지 않는다. 당시의 사목적 필요와 교육 현실 속에서 일정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된다.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 윤리신학을 정립한 헤링과 폭스를 결정적 전환점으로 제시하는 대목에서는, 스승(폭스)에 대한 예우를 넘어 ‘그리스도를 따름’을 윤리신학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저자의 신학적 확신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마지막 8장은 현대 신학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궈낸 신학자들을 조명한다. 키난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사건 자체에 머물지 않고, 서구-남성-성직자가 독점하던 윤리신학의 판도를

비서구-여성-평신도로 확장하며 ‘신학의 얼굴’을 바꾼 주체들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해석학적 원리로 정위시킨 해방신학, 고통의 문제를 구원과 종말의 핵심으로 제시한 스텔레벡스, 그리고 역사적 예수에게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포착한 소브리노 등의 업적은 세계 교회(World Church)로 나아가는 윤리신학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제시된다.

IV. 식별의 여정: 역사의 재구성을 넘어 미래의 윤리로

■ 이처럼 다양한 층위에서 전통을 재구성해내는 저자의 시선은 강점을 이루지만, 동시에 그 시선 자체가 어떤 렌즈를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묻는 일도 필요하다. 키난의 『가톨릭 신학적 윤리의 역사』를 관통하는 축은 분명하다. 그는 규범과 죄 목록을 정리하는 전통적 서술을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 신자들이 거룩함을 향해 기울였던 다양한 노력들, 사제와 신학자들이 양심을 식별하기 위해 축적해 온 지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자비를 더 충실히 전하기 위해 규범을 확장하려 했던 신학적 실천을 중심에 놓는다. 이러한 관점은 소수의 거장에게 집중해 온 기존 윤리신학사에 비해 확실히 ‘아래로부터’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독특한 접근이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레 아날학파(Annales School)가 연상된다. 아날학파가 기후·경제·장기지속(longue durée)·집단 심성

(mentalités) 등 구조적 요인을 포착하며 역사를 재구성했다면, 키난은 행위자들의 응답을 탁월하게 조명하면서도 그 응답을 규정한 사회·정치·경제적 구조 자체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삶의 자리에서 식별하는 주체들”에 대한 감각은 예리하지만, 그 삶의 자리를 형성한 구조가 어떻게 윤리적 상상력과 선택의 지평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밀어붙이지 않는다. 이는 그가 역사학적 방법론을 구사하는 역사신학라기 보다는 예수회적 식별의 전통 속에서 윤리를 바라보는 신학자임을 보여준다.

키난이 전통의 적용과 양심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현대 윤리신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회의 죄스러운 기억과 구조적 불의에 대한 논의까지 고려하면, 그의 접근은 다소 온건하고 미화적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그는 거장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다수의 ‘혁신가들’을 복원해냈지만, 여전히 전통 내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탈인간중심적 문제나, 생태위기의 심화가 요구하는 신학적 재정의와 같은 ‘급진적 지평의 확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식별 - 양심 - 관계”라는 범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키난은 아마도 이런 난제들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주제 아래 성화를 향한 노력을 강조할 것이다. 물론 이는 신학적으로 정당한 대답이지만, 구체적 방법론과 구조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오늘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힘이 약하게 느껴진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양심의 각성보다, ‘생명·인간·지성·윤리’라는 핵심 테제를 다시 정의하는 작업을 요구하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단순한 과거 회고에 그치는 역사서가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전통의 영향과 변모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윤리적 해석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키난은 역사를 통해 윤리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삶의 자리에서 던져지고 결단되며 실천되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전문적 윤리신학 교육의 교재를 넘어, 복음이 비추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 신학적 훈련의 정도와 무관하게 — 질문을 새롭게 설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하는 유익한 안내서로 읽힐 수 있다.